

방망이 활활... 오늘 30승 찍고 독주체제 굳힌다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롯데 원정... 주중 홈에서 두산 맞이
네일, 찰리 반즈와 선발 맞대결

나성범, 지난주 홈런·타점 1위
박찬호, 주간 타율 0.400 '키맨'
불펜 피로 누적에 화력 지원 필요

위기를 넘긴 '호랑이 군단'이 30승 선착을 노린다.

KIA 타이거즈가 21일부터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시작 원정경기를 치른다. 24일에는 안방으로 돌아와 두산 베어스와 1주일 만에 다시 만난다. 30승과 1위 독주가 KIA의 목표다.

KIA는 예상과 다른 주를 보냈다. 8연승 질주를 하며 광주를 찾은 두산과의 경기에서 이어 2위 NC 다이노스와의 대결, 선발진의 부상 고민까지 더해지면서 쉽지 않은 한 주가 펼쳐지는 것 같았다.

결과는 4승 1무 1패. KIA는 두산에 9연승을 허용했지만 나성범의 두 경기 연속 홈런 등으로 10연승을 저지했다.

이어 16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4시간 40분에 걸친 무승부로 끝나면서 NC와의 주말 3연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연장전으로 인한 불펜·체력 소모와 이외리, 크로우의 부상 공백으로 인한 선발 고민까지 더해지면서 NC의 우위가 예상된 시리즈다. 하지만 결과는

NC전 스윙승이었다.

ABS 적응을 끝낸 나성범이 NC와의 첫 경기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공격을 펼치며 4타점 활약을 했다. 이날 나성범의 3호포도 가동했다. 타선의 힘으로 첫 경기를 잡은 KIA는 18일에는 황동하의 5이닝 2실점 호투 속 위닝시리즈를 챙겼다. 그리고 19일에는 1-1로 맞선 9회초 이우성이 상대 마무리 이용찬을 상대로 결승 솔로포를 장식하면서 스윙승이 완성됐다.

KIA가 예상과 다른 연승이 이어지면서 2위를 지켰던 NC가 3위로 내려앉았다. 삼성 라이온즈가 2위로 올라섰지만 KIA와는 3경기 차다.

KIA는 분위기를 이어 '30승'을 기다리고 있다.

19일 승리와 함께 KIA는 29승을 기록했다. 가장 먼저 20승 고지를 밟았던 KIA는 사직에서 30승 선착도 노린다.

1위 질주를 이끌고 있는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이 가장 먼저 마운드에 올라 롯데 찰리 반즈와의 선발 맞대결을 벌인다. 네일이 26일 두산전까지 소화할 수 있고, 황동하도 3경기 연속 5이닝을 책임지면서 선발진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견고하던 KIA 불펜이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나성범을 중심으로 타자들이 화력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나성범은 두산·NC전에서 3개의 홈런포를 날리면서 10타점을 수확했다. 지난주 KBO리그에서 가장 많은 홈런과 타점을 기록한 선수다.

박찬호도 26타수 10안타, 0.400의 주간 타율을 기록하면서 키플레이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박찬호는 3개의 도루도 성공하면서 가장 많은 6득점을 만들었다. 득점권에서도 0.500의 타율을 찍으면서 좋은 활약을 선보였다.

시선은 김도영에게 쏠린다. 꾸준하게 자리를 지켰던 김도영은 지난주 두 경기에서 모습을 감췄다. 14일 두산전에서 양의지의 강습 타구를 처리하다



네일

가 손목 부상을 입었고, 장염 증세까지 보이면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18일 NC전에서 선발 라인업에 복귀한 김도영은 3안타 맹타를 휘두르면서 9번 박찬호와 함께 1번



나성범

자리에서 KIA 공격의 힘을 보여줬다.

하지만 수비가 어렵다. 14일 두산전에서 실책과 함께 부상을 입었던 김도영은 19일 NC전에서도 포구 실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올 시즌 김도영의



박찬호

실책 수가 10개가 됐다. 앞서 수비 실수가 부상으로도 이어졌던 만큼 '3루수' 김도영의 집중력과 활약이 필요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3번째 10골-10도움 새 역사

EPL 최종전 선발 출전...역대 6번째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사진)이 개인 통산 3번째 10골-10도움 고지를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밟았다.

토트넘은 20일 열린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2023-2024 프리미어리그(EPL) 최종 3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0으로 완승했다.

선발 출격한 손흥민이 데얀 콜루세브스키의 선제 결승 골을 도우며 새 역사를 썼다.

노팅엄 포리스트와의 32라운드에서 9호 도움을 작성한 손흥민은 한 달여 만에 시즌 도움 개수를 10개로 늘렸다.

특집에서는 일찌감치 10개를 돌파해 17골을 기록 중이던 손흥민은 이로써 10골-10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이 10골-10도움을 기록한 것은 2019-2020시즌(11골 10도움), 2020-2021시즌(17골 10도움)에 이어 개인 통산 3번째다.

손흥민은 10골-10도움을 3차례 이상 기록한 역대 6번째 선수로 올라섰다.

이 경기에 오르는 선수는 손흥민을 비롯해 웨인 루니, 무함마드 살라흐(이상 5회), 에릭 카모나, 프랭크 램퍼드(이상 4회), 디디에 드로그바(3회)다. 아시아 선수로는 손흥민이 최다다.

전반 14분 제임스 매디슨의 패스가 손흥민의 발을 거쳐 콜루세브스키에게 연결됐다. 콜루세브스키가 골 지역 왼쪽에서 시도한 왼발 슈팅은 반대편 골대 하단을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후반 14분 페드로 포로의 벼락같은 슈팅으로 토트넘은 두 점 차로 달아났다.

6분 뒤에는 손흥민이 왼쪽에서 길게 찰러준 공이 제임스 매디슨의 땅볼 크로스로 이어졌고, 이를 콜루세브스키가 문전에서 골로 마무리해 토트넘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

손흥민은 후반 43분 데인 스카렛과 교체됐다. 토트넘은 6위(승점 63) 첼시의 추격을 따돌리고 5위(승점 66)를 지키며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진출권을 따냈다.

한편, 울버햄프턴의 황희찬은 리버풀 원정에서 치른 최종전에서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하고 리그 12골 3도움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리그컵에서 넣은 1골까지 더하면 올 시즌 공식전 13골 3도움이다.

울버햄프턴은 전반 28분 넬슨 세메두가 알렉시스 마크알리스테르의 발목을 거칠게 밟아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면서 열세에 놓였고, 결국 리버풀에 0-2로 졌다.

황희찬은 선발 출전해 후반 17분 교체됐다. /연합뉴스

여자 에페, 월드컵 단체 우승...올림픽 '청신호'

국제펜싱연맹 월드컵 결승 이탈리아와 연장 접전 끝 정상 광주서구청 강영미, 우승 합작

펜싱 에페 '판언니' 광주서구청 강영미가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 월드컵에서 단체전 우승을 합작했다.

한국 여자 에페 대표팀 강영미, 최인정(계룡시청), 이혜인(강원도청), 송세라(부산시청)는 지난 19일 푸자이라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은 결승전에서 이탈리아를 상대로 연장 접전을 펼친 끝에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16강에서 스웨덴을 45-33으로 꺾은 한국은 8강에서 중국을 만나 45-42 승리를 거뒀다. 한국은 스위스와 맞붙은 준결승에서 45-31 승을 기록하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 한국은 1라운드 5-0, 2라운드 10-1, 3라운드 12-5를 기록하며 초반부터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매섭게 따라붙으며 7라운드 접전이 펼쳐졌다.

7라운드에서 23-23 동점을 내어준 뒤 이탈리아와 한 점 차 승부를 이어가던 한국은 마지막 9라운드에서 33-33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연장전을 치렀다.

1분의 추가시간이 주어졌고 경기 종료 21초를



한국 여자 에페 대표팀 이혜인, 최인정, 강영미, 송세라가 지난 19일 푸자이라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국제펜싱연맹 페이스북 갈무리>

남김 상황, 송세라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34-33 승으로 경기를 마무리 했다.

한국 여자 에페 대표팀은 이탈리아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면서 다가오는 파리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전남도청 최세빈과 전은혜(인천중구청), 전하영·윤지수(이상 서울시청)가 나선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불가리아 플로브디프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최종 4위를 기록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한국 여자배구, 30연패 끊고 3년만에 승리

발리볼네이션스리그, 태국에 3-1...페퍼스 박정아 16득점 활약

대한민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태국을 상대로 2024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첫승을 거뒀다.

이 승리로 한국은 2021년 대회부터 이어졌던 30연패를 끊어냈다.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의 박정아가 16득점을 기록하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한타해도 리베로로 출전해 승리를 합작했다.

한국은 2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랑 지뉴 체육관에서 열린 2024 FIVB 여자 VNL 1주

차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1(25-19 23-25 25-16 25-18)로 태국을 꺾었다.

이날 경기에서는 강소휘(한국도로공사)가 22점을 따내며 양 팀 최다 득점을, 박정아와 정지윤(현대건설)이 각각 16점을 올렸다.

또 미들블로커 이주아(IBK)와 이다현(현대건설)도 11점, 8점을 따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VNL 마지막 3경기 패배를 시작으로 2022년과 2023년에는 12경기에서 전패를 기록했다. 그리고 올해 첫 3경기까지 30연패를

기록했으나 태국전 승리로 승점 3점을 얻어 16개 팀 중 14위에 오르게 됐다.

지난 3월부터 사령탑을 맡은 페르난도 모랄레스 감독은 최근 '만년 꼴찌' 신세였던 대표팀을 승리로 이끌며 이번 시즌 '분위기 반전'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다.

대표팀은 오는 30일 오전 1시 미국 알링턴에서 치르는 불가리아와의 대결로 VNL 2주차 예선을 시작한다. 이어 31일 오전 2시30분 폴란드, 6월 2일 오전 3시 튀르키예, 6월 3일 오전 1시30분 캐나다를 상대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